

이용섭 “대통령이 출마 격려” 발언에 여야 연일 ‘십자포화’

민평당 “GM공장 폐쇄 발표 날, 자기 일자리 챙겨”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직(장관급) 사퇴와 시장 출마 과정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격려했다”는 발언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 부위원장직이 후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날,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 날, 자신은 광주 시장에 나가겠다고 출마선언을 했다”며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만드려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사실상 자신만의 일자리를 찾아 나선 셈이다”고 질타했다.

또 “출마희생을 하면서 대통령께 격려도 받았고 용기도 받았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일자리 부위원장에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은 어디 가고 출마를 격려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청와대는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내 경쟁 후보들도 이 예비후보를 ‘지방선거 적폐 1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며 “이 예비후보의 태도를 보면 고용 대란, 일자리 대란 앞에서 자신이 맡은 일자리 부위원장의 책임을 버렸듯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광주시민들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본인의 선거만을 위해 일자리 부위원장직을 거침없이 내던진 이 예비후보와 공기업 이사장직 진출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다른 위원들의 행태는 현 정부가 국민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업무지시 1호라고 선전만 할 뿐 별반 성과는 없었던 일자리위가 애초 개인들의 ‘스펙쌓기 위원회’였음을 자인한 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당내 경쟁자들도 날선 비판을 마다 않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형자 최고위원, 최영호 남구정장 등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5명은 전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예비후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공공연히 암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평소 소신으로 비취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한 아전인수격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과 면담했고 대통령이 덕담 수준으로 말을 직접 해주셨다. 광주 선거에서 대통령의 덕담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 광주,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격려했고 용기를 북돋아줬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일자리위원회 고만두고 지방선거에 나간다는데 일부 우려가 있는데, 패념치 말고 준비 잘해서 뜻 이루길 바란다”고도 말했다”고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공개했다.

뉴스스



논의하는 우원식-김성태-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유승민 “안철수-남경필 경기지사간 묵시적 선거연대? 생각도 안 해봤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간 ‘묵시적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런 건 아직 생각도 안 해봤다”고 일축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선거연대를 고민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해봤다”고 잘라 말했다.

박우선 공동대표 역시 “그런 격정 하지 말라”라며 “우리는 선거를 공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극복의 대상

이지 연대나 연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날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선거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 전 안 전 대표 남 지사 두 분이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 자리에서 남 지사가 안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니 ‘문 모 민주당이다, 흥 모 한국당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고 했다.

뉴스스

조배숙 “민주당과 연대? 전혀 생각 없어”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들의 세이집’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목표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3곳 석권’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호남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1:1 구도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위기를 저희들이 이끌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 사람들은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지난해 총선 때 호남에서 경쟁구도를 일으켰다”며 “그래서 사실 호남에서는 총선에서 모처럼 선택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 덧붙혔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으면서 “시장이 감당할 수 없도록 너무 급격하다. 그래서 사실 지방은 더 아우성”이라며 “실질 최저임금 인상과 또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스

이용섭 “명부 유출 잘못 없다…警 수사 매우 협조”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대통령 직속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공약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0일 광주지역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나는) 잘못된 게 있어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며 직접 관련성과 정치적 책임론을 반박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믿어야 한다. 중앙당과 광주시장에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 4곳에 했으

면 기다리게 순서지 알가알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매우 협조적이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안다. 민주당 광주시장에서도 자료를 요청해 변호사가 답변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후보들의 비방보다는 시민들의 시선이 더 걱정스럽다. 민주당 후보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리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볼 지 걱정이야. 광주는 민주당만 있다고 오만해선 안 된다”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 때까지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있고, 경찰을 믿고 다른 후보들도 기다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했으며, 사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